

라틴아메리카의 좌파와 포퓰리즘

단기적 인기, “민주주의를 속빈 강정으로 만들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좌파적이며 포퓰리스트한 정권이 단기적이며 부분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안착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그러는 동안 라틴아메리카는 이제 국민이 원하는 정당과 이데올로기를 선택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 때문에 전체적인 동향은 옳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이나 이러한 변화의 종착역이 불확실해 보인다.



미첼 A. 셀리그슨(Mitchell A. Seligson)

피츠버그대 대학원 석사, 동대학원 정치학 박사. 라틴아메리카여론조사프로젝트(LAPOP) 위원장, 일리노이대 및 애리조나대 교수, 평화봉사단(코스타리카 근무). 현재 밴더빌트대 정치학 교수, 동 대학 미주연구소 소장. 저서 《라틴아메리카의 시민과 국가》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와 빈곤》 《코스타리카의 농민과 자본주의》 《국경지대의 멕시코 노동자》 외.

이 글은 존스홉킨스대 출판부가 앞으로 단행본으로 출간할 계획으로 있는 내용의 일부를 수록하고 있음. <자유공론>측이 사전에 존스홉킨스대 출판부의 서면허가를 얻어 게재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본지는 존스홉킨스대 출판부의 관대한 편의에 감사를 표한다. <편집부>

좌파와 포퓰리스트

존스홉킨스대가 발행하는 <민주주의 논총> (Journal of Democracy) 2006년 가을호가 라틴아메리카의 좌경화를 주제로 하는 특집을 펴냈다. 그후 이 지역의 좌경화와 포퓰리즘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남미에는 상당

수 좌파정권이 들어섰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9개국 이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로 편향하는 대통령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2006년 멕시코 대통령선거에서 좌파노선의 후보가 근소한 차로 낙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이 지역에서 사회주의 쿠바를 뺄 수 없다. 쿠바의 카스트로 독재자가 비록 노령에 심각한 불치병을 앓고 있다지만 그를 찰떡같이 따르는 사회주의 좌파가 쿠바를 장악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은 알려진 대로 만연한 전염병이 아니며, 따라서 포퓰리스트적인 후보가 대선에

서 항상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페루의 포퓰리스트 우말라 후보의 패배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한때 쿠데타를 음모했던 전직 육군 중령 우말라가 포퓰리즘의 열풍을 몰아 결선투표까지 갔으나 최종 결선에서 우파에 패배하고 말았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이 지역의 정통 좌파 포퓰리스트 대통령으로 명성이 높으며, 그도 한때 쿠데타를 음모한 전직 중령 출신으로 전형적인 정치군인이다.

최근 포퓰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지도자는 2006년 볼리비아의 모랄레스와 2007년 에콰도르의 코레아 대통령이다. 파라과이에서는 수십 년간 장기집권을 누리온 '콜로라도당' (黨)이 좌파 포퓰리스트 노선을 걷는 루고 신부의 도전을 받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지금처럼 좌파 대통령에 의해 지배된 적이 없다. 물론 좌파라고 해서 모두가 한 가지 색깔을 내지는 않으며, 따라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칠레의 바첼렛 (첫 여성) 대통령은 자유무역과 대미협력과 친선관계를 선호하는 반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사회주의 노선을 칭송하며 극단적 반미주의 독트린을 내세우는 지도자다.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포퓰리스트 정부는 1930년대 브라질의 바르가스 정부였고, 그 다음으로 1940년대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부의 출현이었다. 그후 등장한 포퓰리스트 지도자로 멕시코의 크르테나스, 콜롬비아의 가이튼, 에콰도르의 이바라 대통령 등을 꼽을 수 있다. 바르가스와 페론이 택한 포퓰리즘은 근본적으로 우파적인 것으로 그 이념적 기원은 무솔리니와 기타 유럽의 파시즘에서 유래된다. 이에 반해 1970년대 페루를 지배한 알바라도 군사독재는 분명히 좌파적 포퓰리스트였다.

포퓰리즘의 정확한 정의는 매우 어려운 난제 가운데 하나다. 그 형태가 카리스마적이거나 개인 숭배적 지도자를 따르는 다수계층을 이룰 때 더욱 구분이 어렵

다. 때문에 포퓰리즘의 통일된 특징은 그것이 좌파적 또는 우파적인가라는 구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우파적 포퓰리즘도 좌파적 포퓰리즘도 모두 가능하지만 좌파적 포퓰리즘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좌우를 불문하고 포퓰리즘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의문시하거나 부정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포퓰리즘의 핵심개념은 고전적 자유민주주의와 그 제도, 특히 정당 그리고 입법부(의회)와 사법부(법원)의 당위성과 권위를 전근대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인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명분으로 부정하는 데 있다. 민주적 대의정치와 과정을 모두 우회하고 지도자(대통령)는 인민(국민)과 직접적인 통치관계를 형성하여 이른바 '직접민주주의'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퓰리스트는 추종자의 인기를 의식한 대중선동으로 모든 기존 제도와 질서를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인기위주 리더십만이 인민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 결국 포퓰리즘은 개성이 강한 지도자가 비제도권에 의한 비제도적 다수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권의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전략이며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리더와 국민의 관계가 정당이나 의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인 '인간관계'로 연결되는 포퓰리즘은 기존의 모든 대의민주주의라는 중간단계를 부정 내지 우회함으로써 정치권력은 리더의 사적 의지에 종속된다. 때문에 포퓰리스트 지도자는 명분상 '인민(국민)의 뜻'을 경청하고 스스로는 오로지 '인민의 의지'를 대행하고 이에 반대하는 모든 거부자들을 소외시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포퓰리스트는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인권과 언론의 자유, 법에 의한 절차 등을 모두 무시해도 이는 '인민의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을 그동안 축적된 정치적 성숙과 정당정치 그리고 선거정치의 순화과정으로 보는 낙관론적 견해도 있다. 이제는 군부의 개입을 두려

워하지 않고 투표함에 의해 정권교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과연 포퓰리즘과 다양한 좌파정권의 등장이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 안착에 위협이 되는가? 몇 가지 질문이 있다.

첫째, 좌파적 정서가 이 지역에 만연한다면 정말 국민이 좌경화하고 있다는 말인가? 둘째, 이 지역 국민들은 진정 대의민주주의(의회민주주의)와 사법제도를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직접적이고 막강한 통치권을 주고 있는가? 셋째, 좌파주의와 포퓰리즘을 찬양하는 사람은 민주주의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라틴아메리카의 좌경화는 사실이며 포퓰리즘도 일반화된 정치현상이다. 좌파가 이 지역에서 지배적이진 않으나 단기적으로 좌경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좌파 이데올로기가 강한 곳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좌파는 민주주의 정통성을 의문시하며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권력분권(3권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행정부(대통령)의 권한을 중요시한다. 또한 포퓰리스트는 그러한 좌파와 공생관계에 있으며 저학력, 저소득, 젊은 층일수록 포퓰리즘에 긍정적이며

고학력, 고소득, 중장년 계층일수록 포퓰리즘에 부정적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이념과 좌경화

라틴아메리카는 얼마나 좌경화되었는가? 일반의 예측과 달리 그들의 좌경화 수준은 국제적 기준치보다 그리 높지 않다. 세계가치관조사(WVS) 10점 체도의 중간은 5점이며, 좌로 1에 가까울수록 좌경화를 의미하며 우로 10에 가까울수록 우경화를 의미한다. WVS에 의하면 세계는 지금 평균 5.56점으로 중간인 5점을 기준하여 0.56점 우경화되어 있다고 한다. 칠레 5.22, 멕시코 6.56, 페루 5.69, 베네수엘라 6.23 등으로 나타나 모두가 약간 우경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WVS와 나란히 사용되는 미주바로미터(AB) 데이터를 보면 라틴아메리카의 평균치는 5.77로 WVS의 평균치 5.56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04년에 비해 2005년의 이념적 평균치는 0.4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아직 다수국가는 우경화를 유지하고 있다. 평균치 변동이 있는 10개국을 중심으로 보면, 2개국이 약간 좌경화로, 1개국이 약간 우경화로, 나머지 7개국이 제자리에 머물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좌경화와 포퓰리즘 정치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특히 남미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사진은 공개적으로 사회주의 노선을 표명한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

러 있었다.

이데올로기 변화가 영향을 미치려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 가령 이념적 변화가 있었는데도 처신의 변화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생각의 동요일 뿐이다. 때문에 정치적 성향뿐 아니라 정당에 대한 성향은 물론 직업의식 및 사회적 계급의식 등을 참고해야 한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이념적 성향이 정당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환경적 배경도 매우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다.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념적 선호에 따른 정당선택이 분명하지만, 많은 경우 이념적 구별이 불가능한 때도 있다.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엘살바도르의 경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코스타리카의 주요 정당간 이념적 차이는 불분명하며, 따라서 좌우간 구별이 심하지 않다. 반면 니카라과 정당들은 이념적으로 구별이 분명하며, 좌우간 색깔이 뚜렷해 자기의 이념적 영역을 지키는 데에 비해 엘살바도르 정당들은 이념적으로 흑백 논리에 가까운 대결적 갈등관계를 유지하며, 좌우간 양극화가 가장 심한 경우에 해당된다.

2006년 대통령선거에 나타난 코스타리카의 이념적 평균치는 59였으며, 후보 모두가 이 수치에 근접하는 유권자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편차는 0.6포인트로 자유주의당(ML당) 후보였으며, 그의 지지자들의 이념적 성향은 53으로서 평균치 59에 비해 약간 좌경화한 것이었다. 전통적 중도우파 PUSU당의 이념적 성향은 국가평균치와 동등한 59였으나 여러 가지 스캔들에 말려 대선 패배의 고배를 마셨다. 반면 노벨평화상 수상자 오스카르 아리아스는 중도좌파적 이념수치를 가지고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그의 지지자들의 이념적 경향은 국가평균치 59보다 우경화한 63이었다.

앞서와 같이 라틴아메리카의 이념적 경향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민주주의 성숙도에 비례하여

이념적 차등이 그리 크지 않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선거참여 유권자가 감소하고 체제지지 열기가 다소 감소되었으나 정체성 면에서 코스타리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안정된 나라이며 아울러 이념적 갈등도 가장 작은 나라로 판명된다. 그러나 여기서 멀지 않은 이웃들은 이와 상반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니카라과와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사뭇 다르다. 니카라과 샌디니스타당 대선후보 오르테가를 지지한 유권자들은 예상대로 좌경화한 계층이었으며, PLC당의 블라오스 지지층은 우경화한 유권자들이었다. 니카라과는 코스타리카에 비해 이념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엘살바도르도 니카라과와 유사한 상황이며 대통령선거에서 이념적 대결이 뚜렷하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게릴라 지하조직 출신이며 좌익 FMLN당의 한달을 지지한 계층과 우익 ARENA당의 사카를 지지한 계층 간의 이념적 갭이 상당히 크다. 사카는 1980년대 이후 연이어 대선에서 승승장구했으며, 그의 지지자들의 이념적 성향은 평균 75로 한달 지지자의 33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 극심한 이념적 혼란을 겪는 나라가 칠레일 것이다. 사회주의자 바첼렛 여성후보가 2006년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그를 선출한 유권자 다수는 이념적으로 중도에서 약간 우측에 있으며 결코 좌파가 아니었다. 극단적 좌익후보 히르쉬가 급진적 개혁을 들고 나왔으나 소수의 지지만 얻고 패배했다. 우익 후보였던 라빈은 보수진영 표를 석권했으며, 중도우파적인 후보 피에라는 중도(중간계층)의 지지만 얻었다. 칠레의 경우는 정당과 대선후보가 이념노선을 분명히 하며, 유권자도 이념적 성향에 따라 투표를 한다.

좌경화와 민주주의

민주바로미터(AB) 데이터에 의하면 민주주의를 지

남미의 포퓰리스트 정권이 여러 형태로 존재하지만 공통된 현상은 헌법개정운동으로 집약되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 축소, 또는 중화시켜 무기력하게 하고 대신 행정부(대통령)의 권한만 강화 내지 증강하는 정치개혁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차베스 리더십하의 베네수엘라이며, 이와 유사한 정치개혁이 볼리비아와 에콰도르 등에서도 발견된다. 이 지역에서 포퓰리즘이 부상하는 배경에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깔려 있다.

지하거나 반대하는 문제는 이념적 성향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자신이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국가의 정체성에 확신이 없으며, 아울러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도 낮다.

민주주의를 얼마나 선호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자주 쓰이는 척도가 있다. 이는 동구의 탈공산화 이후 이른바 '처칠의 명제'(Churchill Question)로 알려진 구절이다. 즉, "민주주의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제도보다 낫다"는 것이다. 정치적 이념이 좌로 갈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약하며, 민주적 정통성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좌파적인 사람은 우파적인 사람에 비해 민주주의를 선호하지 않으며, 민주주의에서 이탈할 경향이 높다. 정통성에 시비가 붙으면 좌파는 우파정부의 통치권을 의문시하고 이를 부인하려 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 2가지 부류의 사람을 쉽게 발견한다. 하나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강력한 지도자이며 그는 반드시 선거에 의해 선출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문제가 모두 깨끗이 해결되지 못해도 투표에 의해 이루어지는 '선거민주주의'가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것이다. 칠레와 파테말라의 좌파는 선거민주주의를 지지하며 강력한 지도자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국가에서는 우파들만 선거민

주주의를 지지했다.

다원주의와 정치적 인내력을 수용하는 문제에서도 우파에 비해 좌파는 비타협적이며 반대자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다. 반대자와 공존하는 인내력을 측정하는 기준은 반대자와 소수자의 투표권, 피선거권, 저항권, 언론자유권 등을 수용하는가 하는 시민권적 자유 허락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현재 라틴아메리카는 다수의 좌익정부가 지배하고 있고, 그들은 우익에 대해 관대하거나 인내하지 못하는 정권들이다.

포퓰리스트 정권의 부상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보다 포퓰리즘(포퓰리스트 정권)을 선호한다는 증거가 있는가? 남미의 포퓰리스트 정권이 여러 형태로 존재하지만 공통된 현상은 헌법개정운동으로 집약되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 축소, 또는 중화시켜 무기력하게 하고 대신 행정부(대통령)의 권한만 강화 내지 증강하는 정치개혁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차베스 리더십하의 베네수엘라이며, 이와 유사한 정치개혁이 볼리비아와 에콰도르 등에서도 발견된다.

이 지역에서 포퓰리즘이 부상하는 배경에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깔려 있다. AB 데이터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으며, 교회가 100점 만점 제도

에 69점으로 가장 높은 신임도를 얻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군(軍)이 60점으로 교회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의 신임을 얻고 있다. 정당은 35점으로 가장 낮은 신임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교회가 얻은 69점의 절반에 해당한다. 사법제도가 43점, 입법부와 대법원이 44점 동점이며, 경찰이 46점 등으로 자유민주주의 모든 제도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있다.

WVS 조사결과도 AB 데이터가 밝힌 대로 라틴아메리카 국민신임도 순위가 교회, 군, 경찰, 정당, 입법부, 사법부 순으로 나타났다. 물론 자유민주주의가 안착된 미국과 캐나다 국민 다수도 정당에 주는 신임도가 그리 높지 않으나 라틴아메리카에 비해서는 높다. 캐나다의 정당 신임도는 49.1점이며 미국은 이보다 낮은 42.9점이지만 이는 라틴아메리카의 평균보다 높은 것이다. 캐나다 사법부가 71.3점, 미국 대법원이 67.1점을 기록하여 남미의 평균치 55점을 모두 상회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아이티 31.4점, 파라과이 30.2점, 에콰도르 24.7점보다 상당히 높은 점수다. 라틴아메리카의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인 코스타리카의 사법부 신임도는 미국과 캐나다 수준에 육박하는 52.9점을 기록하고 있다.

전통적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임도가 낮으면 포퓰리즘에 대한 동경심이 높아지고, 국민은 기존의 모든 체제와 질서의 정체성을 부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2006년 여론조사 결과가 말하는 바는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정당이 없는 민주주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44%만 “그렇다”고 답했다. 에콰도르에서는 50.5%, 아이티에서는 62.2%가 정당이 없어도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외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국민 다수는 정당이 부재하는 민주주의 이론을 거부하며 다만 소수만이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퓰리즘 성향을 좇는 근본원인이 기성 제도권에 대한 불만과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지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2006년 AB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라틴아메리카 여론조사 프로젝트(LAPOP)가 포퓰리즘의 매력을 측정하는 틀을 만들었다. 유권자가 정당, 입법부, 사법부를 버리고 행정부(대통령)에 절대권력을 할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늠하는 장치였다. LAPOP가 구성한 5개 문항은 포퓰리즘을 선호하는 이유가 담긴 내용이었다. 예를 들어 “국가발전을 위해 대통령은 야당의 목소리와 참정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든가, 반대로 “국가발전에 장애가 되어도 야당의 목소리와 참정권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같은 문항이다.

이와 같이 상반된 2가지 의견을 놓고 어느 쪽을 지지하는가 하는 물음에서 전체적인 반응은 포퓰리즘을 지지하는 쪽으로 약간 기울었지만 36.3%는 이를 부정했으며, 오로지 15.2%만 포퓰리즘을 강력히 지지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절대다수가 기존 민주주의 권력구조인 3권분립 제도에 부분적인 조절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소수는 누구인가? 민주주의에서 소수는 매우 중요한 존재다. 상대가 분열된 선거에서 소수가 일치단결하면 자신이 승리하거나 아니면 분열된 어느 한쪽에 승리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는 또한 실행행사를 하는 ‘거리정치’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거리나 건물을 점령하고 시위를 하거나 불복종 또는 동맹파업 내지 사보타주는 물론, 극단적인 경우 테러행위로 소수의 위력을 과시할 수 있다. 때문에 라틴아메리카의 소수계층이 포퓰리즘을 지지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립셋 교수의 고전적 업적인 ‘노동계급의 독재정치’ 현상이 라틴아메리카에서 나타나고 있다. 회귀분석에 의해 얻어지는 독립 - 종속 변수간의 관계 데이터를

보면 포퓰리스트한 감정의 성향은 저소득층이며 저학력층일수록 강하다고 한다. 놀라운 발견은 젊은 층일수록 포퓰리즘을 따르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이다.

한때 우리는 고령일수록 자신의 사고와 생활방식에 익숙하여 반대자를 통제하는 정부의 간섭을 지지하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조사결과 반대로 나타났다. 고령일수록 1970년대 군사독재하에서 포퓰리스트한 통치에 시달린 나머지 어떤 형태의 대중적 선동정치도 거부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반대로 젊은 층은 남미의 민주화 이후 세대로 민주주의 기대와는 달리 경제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고, 특히 축적된 부가 저소득 계층에까지 혜택을 주지 못한 데 대한 저항심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라틴아메리카의 고령층은 다양한 색깔의 정치가들이 화려하게 등장했다 초라하게 퇴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 이제는 어떤 종류의 정치적 유행병에도 무감각해진 반면, 이를 모르는 젊은 층은 선동적 포퓰리즘에 쉽게 뛰어든다.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유권자 다수가 젊은 층으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로 앞으로 상당기간 포퓰리즘의 열기가 지속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정기간이 지나 세대가 바뀌면 지금의 젊은 층도 고령화되면서 포퓰리즘에 대한 관심도 저하되리라 생각된다.

라틴아메리카의 쇠퇴?

2가지 특징을 결론으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라틴아메리카의 이념적 센터는 국제적 평균치보다 약간 우측에 있으나 전반적인 성향은 좌로 이동하고 있다. 이념적 간격은 냉전종식 20여년이 되지만 아직도 분명히 좌우로 분리되어 유권자는 그들의 이념에 상응하는 정당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그러나 좌우의 갭은 그리 크지 않다. 코스타리카의 좌우 간격이 좁은 데 비해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칠레 등은 좌우 갭이 크다. 좌파적인

사람은 “비록 미비하지만 그래도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제도다”라는 확신이 없다. 따라서 좌파는 강력한 지도자(대통령)를 원하며, 그러한 리더는 반드시 선거로 선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둘째, 라틴아메리카에 포퓰리즘(포퓰리스트 정권)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남미에서 두드러진다. 포퓰리즘의 등장은 정당, 법원, 의회 등 민주주의 기본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임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에콰도르는 남미 가운데 정당과 의회 및 법원에 대한 신임도가 낮은 국가다. 이 나라는 지난 10여년간 민주적으로 당선된 여러 대통령이 권좌에서 쫓겨났고, 포퓰리스트한 대통령은 사법부의 독립을 말살시켜 버렸다.

권위주의적 지배를 원하는 목소리는 아직 소수에 지나지 않으나 여론조사에 나타난 결과는 70%에 육박하는 다수가 최소한 사법부와 입법부 그리고 야당에 부분적인 제약을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이아몬드 교수가 지적했듯이 남미의 포퓰리즘 열풍은 “민주주의를 속된 강정으로 만드는 주장”에 비유되며, 특히 가난하고 덜 배우고 젊은 층일수록 포퓰리즘을 환영하는 경향이 높다.

결론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좌파적이며 포퓰리스트한 정권이 단기적이며 부분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안착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그러는 동안 라틴아메리카는 이제 국민이 원하는 정당과 이데올로기를 선택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 때문에 전체적인 동향은 옳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이나 이러한 변화의 종착역이 불확실해 보인다. 